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이창훈 공동위원장, 런던기후행동주간 참석 및 기후 거버넌스 외교 본격화

- ‘2026 런던 기후행동 주간’ 계기 △글로벌 에너지 전환·전기화 정상회의, △기후 거버넌스 포럼 등 잇달아 참석(6.22~26)
- 한국의 기후 거버넌스 개혁 및 기후시민회의 출범, 국제사회에 첫 소개
- 영국 에너지안보·넷제로부 기후 담당 정무차관, 영국 기후변화위원회 위원장, ICCN 공동의장단(캐나다·남아공), EU 기후변화과학자문위원회 연쇄 양자면담

- 대통령직속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이하, ‘기후대응위’) 이창훈 공동위원장은 영국 런던에서 개최되는 ‘2026 런던 기후행동 주간(London Climate Action Week 2026)’ 계기 6월 22일(월)부터 26일(금) 기간 중 주요 고위급 회의에 참석하고, 기후 거버넌스를 이끄는 주요국 핵심 인사들과 연쇄 양자면담을 갖는다.
- 런던 기후행동 주간은 유럽 최대 규모의 독립 기후행사로, 올해는 9일간(6.20~28) 750개 이상 행사에 7만 5천여명 이상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되며, 제81차 유엔 총회 고위급주간('26.9), 제3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1)('26.11)를 앞두고 국제 기후·에너지 의제를 형성하는 무대가 될 전망이다.
- 이번 방문은 기후대응위 출범 이후 공동위원장의 첫 다자 기후외교 활동으로 우리 정부의 기후 거버넌스 개혁 성과를 국제사회에 알리고 주요국 기후위원회와의 협력 기반을 구축하는 데 의미가 있다.

1. 글로벌 에너지 전환 · 전기화 정상회의 : 각료급 · CEO 라운드테이블(6.23.)

- 공동위원장은 6월 23일(화) 런던 맨션하우스에서 개최되는 ‘글로벌 에너지 전환 및 전기화 정상회의(Global Energy Transition and Electrification Summit)’ 각료급·CEO 라운드테이블에 참석한다.
- 동 정상회의는 영국 에너지안보·넷제로부(DESNZ), E3G, 글로벌재생에너지연합(GRA), 워민비즈니스연합(WMBC)이 공동 주최하며, 각국 정부·산업계·국제기구·금융기관의 고위급 인사들이 참석하여 에너지 위기 대응과 에너지 전환 가속화를 위한 실천적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 공동위원장은 비공개로 진행되는 각료급·CEO 라운드테이블에 참석하여, ▲전기화(Electrification) ▲화석연료로부터의 전환(TAFF) ▲재원 확대(Scaling Finance) 등 3대 논의 의제에 대한 한국의 사례를 공유할 예정이다.
- 특히, 우리 정부가 지난 4월 발표한 「에너지 대전환 추진계획」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화석연료 의존적 경제구조에서 탈피하려는 한국의 정책 의지를 국제사회에 알릴 계획이다.

2. 기후 거버넌스 포럼 : '미래 세대를 위한 제도적 혁신' 패널 참여(6.24.)

- 공동위원장은 6월 24일(수) 국제기후위원회네트워크(ICCN)와 E3G가 공동 주최하는 ‘기후 거버넌스 포럼(Climate Governance Forum)’에 참석한다.
- 동 포럼은 런던 기후 행동주간의 거버넌스·법률 분야 대표 행사로, 전 세계 정부·기업·학계·법률 분야 인사 200여 명이 참석하여 기후 거버넌스 강화를 위한 과제와 기회를 논의한다. 올해 포럼에서는 ▲기후 거버넌스, 다자주의, 법치 ▲기후 거버넌스와 시민 참여 ▲미래세대를 위한 제도적 혁신 등 시의성 높은 의제들이 다루어질 예정이다.
- 공동위원장은 ‘미래 세대를 위한 제도적 혁신(Institutional Innovations for Future Generations)’ 세션에 메리 로빈슨(Mary Robinson) 前아일랜드 대통령 등과 함께 패널로 참여하여, 장기적 관점의 기후정책 설계와 이행을 뒷받침하는 한국의 제도 혁신 사례를 발표한다.

- 발표를 통해 ▲대통령 직속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출범을 비롯한 한국의 기후 거버넌스 개혁 성과, ▲국민이 직접 기후정책 논의에 참여하는 기후 시민회의 출범 등을 소개하며, 미래 세대와 시민의 목소리를 제도적으로 반영하는 한국형 기후 거버넌스 모델을 국제사회에 처음으로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3. ICCN 회원기관 포럼 : 전 세계 기후위원회와의 협력 강화(6.25.)

- 공동위원장은 6월 25일(목) 국제기후위원회 네트워크(ICCN: International Climate Councils Network) 회원기관 포럼(ICCN Member Forum)에 참석하여 전 세계 기후위원회 대표들과 논의를 진행한다.
- ICCN은 정부로부터 공식 위임을 받아 기후정책을 자문하는 전 세계 기후위원회들의 협의체로, 2021년 출범 이후 회원기관이 지속 확대되어 현재 한국의 기후대응위를 포함한 33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 공동위원장은 동 포럼에서 회원기관 간 상호학습과 공동 의제 발굴 논의에 참여하고, ICCN내 기후대응위의 활동 확대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글로벌 기후 거버넌스 발전 논의에서 한국의 역할이 한층 강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4. 양자면담 : 주요국 기후 거버넌스 핵심 인사와의 협력 기반 구축

- 공동위원장은 ‘2026 런던 기후행동 주간’ 중 주요국 기후·에너지 정책을 이끄는 핵심 인사들과 연쇄 양자면담을 갖고, 기후 거버넌스 협력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 (영국 정부) 케이티 화이트(Katie White) 영국 에너지안보·넷제로부 기후 담당 정무차관과의 면담에서는 양국의 기후위기 대응 및 에너지 전환 정책 경험을 공유하고, 금년 11월 개최되는 제31차 유엔기후변화 협약 당사국총회(COP31) 및 내년도 영국의 G20 의장국 수임을 앞두고 양국의 기후·에너지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 (영국 기후변화위원회) 세계 최초의 법정 독립 기후자문기구인 영국 기후변화위원회(Climate Change Committee)의 나이젤 토폭(Nigel Topping) 위원장과의 면담을 통해 탄소예산 제도 운영, 정부 권고와 이행 점검 등 영국 기후위원회의 축적된 운영 경험을 청취하고 양 기관 간 정례 교류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 (ICCN 공동의장단) ICCN 공동의장을 맡고 있는 릭 스미스(Rick Smith) 캐나다 기후연구소(Canadian Climate Institute) 소장 및 두미사니 은쿠 말로(Dumisani Nxumalo)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직속 기후위원회 (Presidential Climate Commission) 사무처장과 각각 면담을 갖고, 글로벌 기후 거버넌스 강화를 위한 각국 기후대응위의 역할 확대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 (EU 기후변화과학자문위원회) 유럽연합(EU)의 독립 과학자문기구인 EU 기후변화과학자문위원회 프랑스와 드장(François Dejean) 사무국장과의 면담에서는 과학에 기반한 기후목표 설정 검증 경험을 공유하고, 한국의 중장기 감축 경로 수립과정에서의 과학적 자문 체계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 이창훈 공동위원장은 "기후위기 대응의 성패는 결국 거버넌스, 즉 누가 어떻게 결정하고 이행을 점검하는가에 달려 있다"라며, "이번 런던 방문을 통해 한국의 기후 거버넌스 개혁과 기후시민회의 출범 경험을 국제사회와 나누고, 기후외교의 역할을 '성실한 이행국'에서 '거버넌스를 주도하는 국가'로 확대해 나가는 출발점으로 삼겠다."라고 밝혔다.
- 또한 “에너지 대전환과 탄소중립은 미래 세대에 대한 현 세대의 책임”이라며, “국제사회와의 연대 속에서 흔들림 없이 기후위기 대응을 이끌어 가겠다.”라고 강조하였다.

담당 부서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사무처 기획조정국 국제협력과	책임자	과 장	강운호 (044-200-1921)
		담당자	사무관	심명섭 (044-200-1922)